

憑虛小說研究

金 永 和

目 次

- | | |
|----------------|-----------|
| 1. 序 | 3. 技術의 諸相 |
| 2. 作品世界 | A> 性格創造 |
| A> 植民地 知識人의 挫折 | B> 풀꽃 |
| B> 植民地 貧民의 狀況 | C> 視點 |
| C> 世態描寫와 풍자 | 4. 結 |

1. 序

憑虛 玄 鎮健(1900~1943)은 金 東仁(1900~1951), 廉 想涉(1897~196ω)과 더불어 草創期 短篇小說의 基礎를 確立한 作家다. 그는 1920年 11月 雜誌「開闢」에다 玄哲의 紹介¹⁾로 『犧牲花』를 發表하면서부터 作品活動을 始作했다. 이것은 金 東仁의 데뷔作 『弱한 者의 슬픔』(1919)보다는 一年 늦게, 廉想涉의 『標本室의 靑개구리』(1921년)보다는 一年 앞서 作品을 發表한 셈이다. 不過 一, 二年의 差異는 있어도 이들 세 作家는 年令도 비슷하고 作品活動도 비슷한 時期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從來의 文學史에서는 東仁에게 큰 文學史的 比重을 둔데 비해 憑虛를 소홀하게 다룬 點이 없지 않다. 그렇게 된 理由는 東仁 스스로의 證言²⁾을 大部分의 文學史家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데서

1) A> 朴英熙: 「初創期文壇側面史」(現代文學 58號) p. 68

B> 金炳翼: 韓國文壇史, 서울, 一志社, 1973. 10. p. 66

2) 金東仁은 「近代小說考」(1929)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李人植의 독무대를 지나서 春園의 독무대, 그 뒤 二·三年間은 필자(東仁 스스로를 지칭=引用者)의 독무대나 다름 없었다.」(東仁全集 8卷 p. 593)

맞아진 것 같다.

우리가 文學史를 叙述하는 과정에서 不過 一, 二年의 差異를 두고 그 時間的 격차를 論하거나 意義를 따지는 것은 올바른 文學史의 定立에 混亂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도 못 될 것이다. 특히 憑虛와 東仁을 對比해 볼 때 「데뷰」작만이 問題가 아니라 初期의 佳作에 屬하는 作品들— 이를테면 憑虛의 『貧妻』(1921), 『술 勸하는 社會』(1921)와 東仁의 『애따라기』(1921)는 같은 해에 發表되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더 文學史의 무게를 더했느냐 하는 것은 先後關係만을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東仁과 想涉에 비해 憑虛는 그 生涯가 짧고 作品活動 期間이 짧았다. 東仁이나 想涉은 全生涯에 걸쳐 作品活動을 한 데 비해 憑虛는 20年代에 活動하다가 30年代와 40年代는 거의 沈默을 지키고 말았다. 30年代末에 와서 長篇인 『赤道』, 『無影塔』, 『黑齒常之』등을 쓰기는 했으나 短篇小說의 경우 20年代의 活動이 고작이다. 이것이 憑虛의 作品數가 많지 않은 理由이고 다른 作家에 비해 論議가 활발하지 못한 理由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文學評家나 文學史家들에 의해 憑虛의 소설에 대한 論議는 계속되어 왔다. 그 主流는 憑虛가 描寫에 뛰어나다는 見解³⁾와 技巧의 洗鍊과 能熟을 드는 見解⁴⁾로 귀착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手法의 客觀

- 3) A) 朴鍾和: 「貧妻」, 「술 勸하는 社會」에 대한 作品評
「文壇의 一年을 追憶하야」(開關 31號 p. 13)
B) 朴鍾和: 「墮落者」에 대한 作品評
「嗚呼我文壇」(白潮 二號 p. 150)
C) 廉想涉: 「지새는 안개」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作品評
「올해의 小說界」(開關 42號 pp. 35-36)
D) 朴英熙: 「B사감과 러브레터」에 대한 作品評
「二月 創作評」(開關 47號 p. 48)
E) 白 鐵: 國文學全史 p. 325
4) A) 金基鎮: 「불」에 대한 作品評, 「1月 創作界 總評」(開關 56號 p. 2)
B) 金東仁: 「近代小說考」(東仁全集 8卷 p. 595)
C) 白 鐵: 新文學思潮史 p. 215
D)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p. 567

的 寫實性을 들고 있다.⁵⁾

그런데 憑虛가 手法의 寫實性에 뛰어나다는 點에 見解를 같이 하면서도 文藝思潮史의 側面에서는 見解를 달리하여 寫實主義⁶⁾ 自然主義⁷⁾ 浪漫主義⁸⁾로 意見이 엇갈려 있다.

한 作家의 作品을 文學史의 觀點이든 作家論, 作品論의 觀點이든 技巧의 洗鍊에 歸着되고 西歐文藝思潮에다 代入시켜 評價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은 우리의 文學을 理解하고 評價하는 데 바람직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技巧가 뛰어나다는 것도 抽象的으로 얘기되고 있을 뿐 그 具體的인 實例가 提示되고 있지 않다.

보다 한 作家의 作品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評價하는 데는 그의 作品의 內部構造를 探索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憑虛를 技巧派의 作家라느니 自然主義作家라느니 하는 評價는 憑虛를 다른 作家와 區別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憑虛는 全生涯에 걸쳐 短篇이 약 25篇, 長篇은 쓰다가 中斷된 것까지 합쳐 4篇, 번역이 6篇 있다.

筆者는 25篇 前後의 短篇小說을 對象으로 그 內部構造를 探索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目的이다.

2. 作 品 世 界

A) 植民地 知識人의 좌절

憑虛는 20年代 初期 植民地 知識人의 問題를 다루고 있다. 『貧妻』, 『술

5) A) 白 鐵: 新文學思潮史 p. 214

B) 朴英熙: 現代韓國文學史 (思想界連載 4回 1958. 10. p. 247)

朴英熙: 初創期文壇側面史 (現代文學 59號 p. 189)

C) 趙演鉉: op. cit. 572

D) 尹炳魯: 「玄鎮健論」 (新韓國文學全集 5卷, 語文閣 p. 448)

6) A) 朴鐘和: 「大戰後의 文藝運動」 (東亞日報 1929年 1月)

B) 趙演鉉: op. cit. p. 569

7) 朴英熙: 初創期 文壇側面史 p. 247

8) 洪曉民: 「文學의 歷史의 成長」 (趙演鉉 op. cit. p. 568 參照)

勸하는 社會』, 『墮落者』, 『지새는 안개』等 주로 그의 初期作에 屬하는 作品이 그것이다.

이들 小說의 登場人物은 小說을 달리하면서도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主人公이 모두 20代 青年이다. 『貧妻』의 「나」가 그렇고, 『술 勸하는 社會』의 「男便」이 그렇고, 『墮落者』의 「나」와 『지새는 안개』의 「김창섭」이 그렇다. 이들은 두 세상 위의 無識한 女子와 結婚한 既婚者요, 同時에 東京 留學生들이다. 이 소설들이 쓰여진 당시의 時代狀況으로서는 가장 知識이 많은 階層이다.

이들은 처음에 그들이 배운 知識을 活用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끝내 좌절하고 만다. 良心的인 殖民地 知識人의 갖는 拘束과 限界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貧妻』의 「나」는 스스로 천품은 없다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여쭙든 무슨 저작가로 몸을 세워 보았으면 하여 나날이 창작과 독서에 전심력을 바치는>⁹⁾ 人物이다. 말하자면 創作行爲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讀書과 創作을 계속한다.

그러나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해가 지며 날이 새며 살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망연케 모르는>¹⁰⁾ 生活이 계속되는 동안 「아내」가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온 옷마저 팔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생활이 궁핍해진다. 그나마 讀書과 創作에 物質的인 報酬가 없다 하더라도 精神的인 慰安이라도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잘난 언플 씌어서 무어라고 고적거리 놓고 제 주체에 무슨 조선에 유명한 문학가가 된단나! 시러베 아플놈!>

¹¹⁾ 이라는 罵倒가 고작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는 讀書과 創作으로 몸을 세워보겠다는 決意를 하지만 하루하루 생활의 궁핍과 내일에 대한 希望을 잃어간다. 한때는 苦生하면서도 男便이 잘 되기를 빌고 있던 「아내」마저 아제는 失望에 빠진다. 결국 「그」가 배운 知識은, 그리고 그가

9) 「新韓國文學全集 5」(語文閣 1970) p. 161 引用

10) 上記書 p. 160 引用

11) 上記書 p. 158 引用

하는 讀書과 創作은 精神的인든 物質的인든 아무런 代價를 그에게 갖다 주지 않는다. 여기에서 그는 끝내 挫折할 수 밖에 없다.

『술 勸하는 社會』의 「男便」은 東京에서 大學을 마친 후 歸國해서는 具體的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보람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쓰기도> 12) 하였다. 그러나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답답하고 화가 나서 술을 마시게 된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才能을 믿고 <아아 有爲有能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 아니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13)고 自歎한다. 그러면서 그가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社會에 있다고 얘기한다.

「무어라 할까…… 저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요…… 여기 회(會)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놈 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느니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들이 못되어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 데 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네 권리가 많으니 내 권리가 많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會)뿐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 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적이 정신이 바루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 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 밖에 먹을게 도무지 없지. 나도 전자에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 보았어. 그것이 모다 수포야. 내가 술을 먹고 싶어 먹는게 아니야……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 밖에 없어」14)

「男便」은 적어도 이 社會나 民族을 爲해 보람된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이 소설 도처에서 發見된다.

『墮落者』의 主人公도 東京에서 大學을 다닐 때는 <모범적 학생>이요,

12) 上記書 p. 169 引用

13) 上記書 p. 172 引用

14) 上記書 p. 173 引用

<유망한 청년>이란 칭찬까지 들었다. 남들이 놀 때에도 <한 자라도 알려 하며 두 자라도 배우려 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歸國後의 生活은 失望과 좌절속에 보내게 된다. 新聞社에 就職이 되었어도 俸給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社會에 對해 不平이 많고 술을 마시게 된다. 그것을 기화로 妓生「春心」이와 사귀었다가 性病에 걸리고 그것이 아내에게까지 傳染될 만큼 타락되어 가는 생활을 그렸다.

『지세는 안개』의 「김 창섭」도 未婚한 東京留學生이다. 歸國後 걸 넘어 버린 아내가 보기 싫어 上京해서는 친척집에 기숙하면서 英語를 工夫하고 文學書籍을 耽讀한다. 職業이 없는 만큼 심심 소일로 책을 읽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無爲徒食하는 生活이 始作된다.

多幸히 친척의 紹介로 半島日報社에 就職이 된다. 그는 生活費도 問題였지만 新聞記者가 되면 <偉大한 事業에 獻身的으로 努力>¹⁵⁾ 할 수 있다는 커다란 希望을 갖게 된다. 그것은 그가 일찍부터 憧憬하던 職業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계속한다.

그러나 時間이 흐를수록 失望에 빠진다. 記者가 되었지만 기껏해야 日本新聞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졌다.

「昌燮」은 新聞社에 들어가기 前까지는 新聞社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高潔한 人格과 該博한 知識과 偉大한 思想>¹⁶⁾의 所有者로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反對로 <平凡하고 庸劣>하여 <朝鮮 어느 社會나, 아니 人間 어느 社會나 마찬가지로 追從과 利己와 阿勢와 麗驕과 영터리와 태가락이 있을 뿐이었다. 더욱이 怪常한 일은 時代에 앞서야 할 그들이—앞섰다고 自處하는 그들이 時代에 뒤처가지고 저만치 달아나는 時代를 咀呪하고 誹謗하고 嘲笑하고 猜忌하고 慨歎하는 것이었다>¹⁷⁾

15) 開關 38號 p. 144 引用

16) 開關 39號 p. 130 引用

17) 上記書 p. 131 引用

그래서 「昌燮」은 점점 新聞社에도 매력을 잃기 始作했다. 우선 같이 열하는 동료들에게 幻滅을 느끼기 始作했다.

〈訓導的 青年 修養論〉이나 〈목고 석은 센티멘탈한 憂國〉을 고작 쓰면서 天下事를 論할 수 있는 양 떠벌리는 論說記者나 자기가 좋아하는 妓生을 〈千里眼〉이라는 〈허접쓸이기欄〉에 실어 칭찬하면서 〈社會의 木鐸, 無冠의 帝王〉이라고 생각하는 記者들이나 하나같이 「昌燮」에게는 幻滅이었다.

「이 석은내, 더러운 내, 곰팡내, 음탕한 내가 떠도는 분위기를 처음으로 마실게 昌燮은 구역이 날 것 가맏다. 숨이 막힐 것 가맏다. 그는 사람의 집인 줄 알고 왔다가 도야지 우리(신문사=引用者)에 나자빠진 것 가티 놀래었다……. 이 도야지 우리야 말로 사람의 집인 줄 깨달을 제 그의 놀렘은 몇 곰결이었다. 귀막히는 幻滅이었다」¹⁸⁾

「김 창섭」은 이렇게 幻滅을 느끼면서도 그 自身 스스로 그 世界에 同化해 들어간다.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人物이다.

이러한 知識人의 挫折은 1920年代 初期 우리 나라 知識人의 狀況을 그대로 代辨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日本 帝國主義의 억압도 따랐지만 그에 못지 않게 「歷史意識과 時代意識을 喪失한 당시의 精神的 風土도 있었다. 民族을 意識하고 무엇인가 價値 있는 일을 하려다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狀況으로 보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① 「今日엔 自稱 一流詩人然하고 明日엔 벌써 그 職을 改하여 大思想家로 自處하여 何事의 反對演說을 하느니 何會를 組織하고 何理事長을 兼任하느니 하여 眼이 眩하고 足이 飛하다가 再明日엔 또다시 그 職을 拋하고 彷徨踟躕하여 恰似히 米豆取引의 投機事業者같이, 그 機를 觀하여 事를 謀하고 天賦를 變하고 改하여 倥幸의 名譽의 好運을 攫하러 하나니 呵呵라. 一은 物質的 投機業者이면 一은 名譽的 投機業者이라. 吾人은 始히 絶妙한 好箇對照를 發見하였도다」¹⁹⁾

18) 上記書 pp. 137-138 引用

19) 朴鍾和 : 「嗚呼我文壇」 (白潮 2號 p. 142)

② 「한번은 開闢社 편집실로 原稿料을 받으러 온 사람이 한사람 두사람 모였다……. 그러나 午前에 온 사람들이 午後 한시가 되어도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모인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 호떡을 사다 놓고 먹으면서 누군지 原稿紙에다 毛筆로 커다랗게 「人間廢業」이라고 써서 벽에 부쳐 놓았다. 이렇게 가난하고 理解가 없고 希望조차 보이지 않은 이 社會, 이 나라에서 이러한 근색한 짓을 해가면서 살려는 뜻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문학은 해 필하고 철학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문화는 다 무어야! 이렇게 좋아가고 자격 들어가는 것이 문화란 말인가!』

『오직 혁명이다!』

原稿料에서 화가 난 우리는 사회로 民族으로 이렇게 不平의 범위를 넓히면서 이런 말을 주고 받았었다」²⁰⁾

여기 引用한 ①, ②의 글은 1920年代 初期의 植民地 韓國의 知的 분위기와 精神的 風土를 우리에게 傳해 준다. 이러한 狀況속에 良心的인 知識人은 挫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知識人의 좌절을 憑虛는 小說을 通하여 告發하고 證言한 것이다.

당시의 作家들, 이를테면 金 東仁이나 廉想涉, 또는 羅稻香과 比較할 때 가장 知識人의 問題에 關心을 많이 기울인 것이 玄鎮健이다. 그것은 이들 知識人이 社會의 指導層이라는 点에서 그는 社會에 크게 關心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社會에 對한 關心은 批判을 同伴한다. 그것은 「좀더 現實의 밑바닥을 파헤쳐 보려는 批判者的 意志」²¹⁾에서 出發한 것이다. 이러한 現實의 밑바닥을 파헤치려는 姿勢는 리얼리즘의 精神과도 相通한다. 그것은 우리의 小說에 있어야 할 가장 貴重한 姿勢이기도 하다.

B) 植民地 貧民의 狀況

憑虛의 또 하나의 世界는 植民地 地下의 貧民들에 對한 關心이다. 『운수 좋은 날』, 『私立精神病院長』, 『故鄉』등의 作品이 그것이다.

이들 소설의 主人公들은 대체로 教育을 받지 않았다. 『운수 좋은 날』의

20) 朴英熙: 初創期 文壇側面史 (現代文學 60號) p. 256

21)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 (형설출판사 1969) p. 63

「김침지」나 『故郷』의 「그」나 모두 그렇다. 『私立精神病院長』의 「나」도 서울서 中學을 苦學으로 다닌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教育을 받지 못했다는 點은 같다. 植民地 時代의 大部分의 百姓처럼 이들은 教育의 惠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열심히 일할 나이인 20代 後半에서 30代에 이르는 人物들이 이들이다. 教育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職業을 가지고 일해야 할 나이다. 그러나 아무도 변변한 職業이 없다.

『운수 좋은 날』의 「김침지」는 人力車꾼이다. 一種의 막벌이 勞動者다. 다행히 손님이 있으면 약간의 돈을 벌고 없으면 그만이다. 날씨가 좋거나 病에 걸려 일을 못하면 품작없이 굶게 되었다. 近代의 意味의 職業이 못되는 이 人力車꾼의 하루를 그린 것이 『운수 좋은 날』이다. 때문에 가난은 언제나 「김침지」 周邊에서 떠나지 않는다. 김침지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데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물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첩 써 본 일이 없다. ……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 때도 김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실전짜리 나무 한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남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 년이 술가락은 그만 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뺨에 주먹덩이 같은 흑이 붙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켤진다고 눈을 홑뜨고 지랄병을 하였다]²²⁾

『私立精神病院長』의 「W」는 子息을 가진 家長이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18歲때 伯父의 養子로 들어갔다. 그러나 伯父는 빚으로 財産을 없애 버렸고 「W」는 할 수 없이 처가살이를 한다. 처가집마저 가난해서 살길이 없어진 그는 미친 사람(狂人)의 말벗과 保護者가 되어 주는 代價로 報酬를 받고 생활해 나간다.

22) 新韓國文學全集 5. 語文關 1970. p. 217 引用

그러나 그 生活이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그만큼 그는 貧困의 威脅앞에 떨고 있다. 그리하여 친구의 招待로 술집에 갔다가 먹다 남은 飲食을 집으로 가져 오려다가 困辱을 치르게 된다.

「한팔로 료리상을 집고 몸을 간우지 못하면서도 아직 술병을 기울이고 있는 W군은 문득 보이를 불러서 신문지를 가져 오라 하였다. 신문지를 받아들자 그는 약삭이며 떡가튼 것을 주섬주섬 싸기 시작하였다.

『여보게 창피하게 그만 두게』 K군이 눈섭을 찡기며 말리었다.

『엇던가. 내돈 준 것 내가 가져가는데』 하고 W군은 역시 우스며 벌벌 떠는 손으로 쌀 것을 줍기에 바쁘다.

『인제 그만 싸게, 에이 창피스러워』 하며 K군은 고개를 돌린다. 맛츄내 W군은 쌀 것을 다 싸가지고 송편과 약삭이 뿔뿔째 나오는 봉지를 들고 비슬 비슬 넣어선다.

그 때 K군의 「나지미」라는 명옥이가 메쭈거리며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원장 영감께서는 오늘 밤에 큰 잔치를 하겠거면』 하고 비우적거리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W군은 나는 듯이 명옥이에게로 달려 들었다.

『이년 똥이 었켜!』라는 고함과 함께 W군의 손은 철석하고 명옥의 뺨에 올라 부딪는다. …… 이 야단통에 W군의 떡 쌀 봉지는 방바닥에 떨어져 헤어졌다…….

싸흠은 벌어졌다. K군이 명옥이 역성을 들며 W군에게 덤빈 까닭이다. K군은 W군의 목덜미를 잡아 휘둘레 돌리다가

『이 자식이 미친놈 하고 갖치 었더니 밋쳤나봐. 왜 사람을 치며 질알발판을 하노』 하며 휘 뿌리치매 W군은 빗슬빗슬 몇 거름 걸어 나오다가 방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폭 거구러졌다. ……

얼마만에야 그 료리집 방문을 나오랴 하였다. 그 때 W군은 무엇을 찾는듯이 련해 방안을 샅히다가 앓가 내가 언저 둔 봉지를 발견하자 그의 눈은 이상하게 멧적이었다. 그의 뜻을 질에 짐작한 나는 얼른 그 봉지를 집으며 그는 내손에서 봉지를 빼앗듯이 바다가지고 방바닥에 태질을 쳤다. 그러자 그는 헤어진 음식우에 격구러지어 영영 울기 시작하였다. 그의 얼굴과 손은 약식부성이 되고 말았다.

『복돌아, 약식 안 먹어도 산다. 복돌아! 송편 안 먹어도 산다.』

한동안 제 아들 일흔을 부르며 목을 노코 울었다」²³⁾

23) 短篇集「朝鮮의 얼굴」(서울, 글벗집 1926) pp. 12-15 引用

이렇게 한을 품었던 「W」는 끝내 미쳐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서 植民地地下의 貧民의 모습을 보게 된다.

『故郷』의 主人公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農土를 東洋拓植會社에 빼앗기고 間島로 건너간다. 그러나 兩親은 가난과 營養不足, 그리고 고된 勞動에 시달려 죽는다. 그는 더 이상 間島에 있기 싫어 新義州로, 安東으로 품팔이를 찾아 해마다 日本으로 건너간다. 九州 炭礦에도 있어 보고 大阪 鐵工場에도 있어 보았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고 의로와 故郷을 찾아온다. 그러나 故郷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그를 반겨 맞는 사람이 없다. 그는 다시 정처없이 서울행 기차를 탄다. 하지만 서울에 간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農土를 잃은 植民地 農民의 悲慘相이 이 小說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들 小說은 都市의 품팔이건 職業없는 시골 사람이건, 떠돌아 다니는 放浪客이건 모두 가난과 失意속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個人的 모습을 그린 것이라기 보다 植民地地下의 韓國人의 모습을 抽象化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침지」는 個人 「김침지」가 아니라 植民地地下의 勞動者의 抽象化된 存在다. 「김침지」의 돈에 대한 行爲는 「김침지 個人의 私的인 經驗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作家는 描寫하고 있지 않다. 김침지 個人은 그 階層의 抽象으로 問題視되도록 作家는 意圖하고 있어」²⁴⁾ 植民地의 狀況과 貧困의 問題를 깊이 파헤치려는 作家의 姿勢가 엿보인다.

가난 때문에 미쳐버린 『私立精神病院長』 「W」군도 植民地 時代의 이 나라의 庶民의 한 모습이다. 銀行의 末端職員으로 있다가 整理봉에 찢리고 굶어 죽을 수 없어 미친 사람의 말벗과 保護者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W」군 個人의 비참만을 그린 것이 아닐 것이다. 대부분 職業이 없는 植民地 百姓의 處해 있었던 狀況이 바로 이것이다.

『故郷』의 「그」는 農民이다. 그는 시골에서 역둔토일망정 農土를 일구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土地를 빼앗기고 있다는 데 눈을 돌릴 必要가 있

24) 申東旭：韓國現代文學論，博英社，서울 1972，p. 109

다.

「한 백호 남짓한 그곳(그의 故郷=引用者)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 먹고 살었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리는 것보다 멀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러울지 안케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꾸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 고 말았다.」²⁵⁾

세상이 바뀌어 植民地가 되자 土地를 빼앗긴 사람들은 심든 좋은 流浪民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

이 모든 것은 憑虛가 現實에 대한 날카로운 批判意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적어도 民族愛가 없고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問題意識에 있어서 단순한 貧困의 問題를 파헤치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 要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려는 姿勢가 있다. 적어도 社會意識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도 리얼리즘의 精神과 相通하는 것이다.

C) 世態描寫와 풍자

1920年代 初期는 開化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 들면서 封建的인 愛情의 樣相이 점차 轉換되는 時期다. 李朝의 封建的인 愛情倫理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愛情倫理가 徐徐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過渡期가 이 時期다. 新小說에서 自由戀愛와 自由結婚이 主唱되었고 그것이 春園의 『無情』, 『開拓者』등에서 한걸음 앞서 作品을 통한 具體的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男女가 新式教育을 받는 것과 不可分離의 關係에서 일어난 것이다. 過渡期인 만큼 완고한 因習的인 愛情倫理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自由戀愛가 混合된 時期였다. 憑虛는 그러한 倫理의 갈등을 그리려 한 것은 아니다. 愛情倫理 以前에 당시의 世態를 그리고 있다.

당시 東京 留學生中 男子들은 대개 傳統的인 因習에 따라 自己보다 나이가 위의 女子와 早婚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女子의 경우는 未婚인

25) 短篇集 「朝鮮의 얼굴」 (서울 글벗집 1926)p. 160 引用

경우가 많았다. 異國땅에서 既婚 男學生과 未婚인 女學生의 사랑이나 未婚 男女學生의 사랑은 유학생들의 話題요, 憧憬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성한 사랑이니 정신적 사랑이니 自由戀愛니 하는 가운데 封建的 愛情倫理가 파괴되는 대신 그에 代替해서 나타나는 愛情倫理는 無秩序 그것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未婚한 男子들은 소위 「新女性」을 接한 후부터 本妻에 失望을 느끼게 된다.

「구정물이 똑똑 두는 행주치마는 거대 얼른만 하여도 불쾌한 생각을 금할 걸 업섯다. 그 죽음도 가다듬지 안흔 우수수한 머리며 벌서 두어금 가는 주름에 잠힌 니마며, 그 옛된 빗 하나 업는 시들시들한 뺨을 볼 제 창섭은 저것이 내 안해인가 하얏다. 맛 누님 사벌이 훨씬 넘는 저 늙어 빠진 녀자가 내 안해인가 하얏다. 이런 생각을 하매 창섭의 가슴은 마치 새침한 가을 모양으로 쓸쓸하고 어두엿다. 그리고 무슨 지계운 짐승처럼 겨대만 와도 몸서리가 치임을 아 켜할 수 업섯다.」²⁶⁾

이것은 당시 未婚한 留學生들의 意識世界를 나타낸 것이다. 그만큼 어쩔 수 없이 未婚은 했지만 아내에게 마음을 둘 수가 없엿다.

「무슨 대학 졸업생을 신랑으로 어떤 女學校 出身을 新婦로 꽃다운 결혼식이 開催되엿다는 신문기사가 눈에 뵈 때마다 창섭은 화증이 나는 듯이 뵈 신문을 집어 동맹이 치며 한숨을 쉬기도 하얏다.

『그들은 참으로 幸福일다.』

우리 留學生들 가운데 未婚한 男學生과 未婚한 女學生끼리 골같은 사랑에 단꿈을 꿀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는 이러케 불어워도 하엿섯다.」²⁷⁾

이것은 당시의 愛情의 風俗이엿다. 그리하여 本妻에 失望을 느낀 젊은 이들은 新式 女子를 그리워 하면서도 妓生과 愛情行脚을 벌인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世態의 모습이기도 했고 憑虛의 小說에도 많이 登場하고 있다. 『墮落者』의 主人公이 妓生 「春心」이와 어울리는 것이나 『지새는 안

26) 開闢 35號 p. 130 引用

27) 上記書 p. 131 引用

개』의 「昌變」이가 妓生 「雪花」에게 빠지는 것이나 『그림은 옮긴눈』의 「그」가 妓生 「彩仙」에게 빠져 財産을 탕진하는 것이 다 그렇다. 憑虛의 小說에 妓生이 많이 登場하고 그것은 結局 비뚤어진 愛情(sex)에 歸着되고 있다. 妓生과의 사랑은 우선 肉体가 問題되고 있고 돈이 問題되고 있어 愛情倫理의 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世態를 憑虛는 比較的 잘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世態를 그리는 것은 結果的으로 批判意識의 所産이다.

憑虛는 은연중 이런 世態를 批判하고 있는 것이다.

『B사감과 러브레터』는 단순히 人間心理의 깊은 맥을 파헤친 것만이 아니라 새로 밀려들어 온 愛情倫理에 對한 憧憬과 갈등에서 한결음 나아가 變態心理가 된 女性을 그렸고, 『피아노』는 제 분수를 잊은 젊은 男女의 虛榮心을 풍자하고 있다. 얼치기 개화꾼을 嘲笑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底邊에 批判精神이 없고서는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까막잡기』도 新式 變愛에 대한 憧憬이 빚어낸 웃지 못할 사건을 그려 당시의 新式 靑年들 사이의 愛情世態를 그리고 있다.

3. 技術의 諸相

A> 性 格 創 造

憑虛小說의 登場人物을 E. M. Foster가 分類한 平面의 人物(Flat character)과 立體的 人物(Round character)로 나누어 본다면 대체로 平面의 人物에 屬하고 있다. 하나의 小說에 登場한 人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變化가 없다. 思考나 行動이 始終如一하다. 『貧妻』의 「나」, 『술勸하는 社會』의 「남편」, 『墮落者』의 「나」, 『운수 좋은 날』의 「김침지」, 『故鄉』의 「그」, 『지새는 안개』의 「김창섭」등 대개 그렇다. 同時에 『貧妻』, 『술勸하는 社會』, 『墮落者』의 主人公은 同一 人物이라 볼 수 있을 만큼 類似點이 많다.²⁸⁾

28) 拙考: 「草創期 小說의 樣相」(제주문학 2호) p. 125 參照

특히 이들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아내의 경우는 완전히 平面의 人物이라고 볼 수 있다. 『빈처』, 『술勸하는 社會』, 『墮落者』, 『지새는 안개』에 등장하는 「아내」는 소설을 달리 하면서도 同一人物이나 다름이 없다.

憑虛小說에 妓生이 가끔 登場하는데 그 妓生들도 그 性格이 類似하고 平面의 人物이다. 『타락자』의 「春心」, 『지새는 안개』의 「雪花」, 『그림은 흘긴 눈』의 「彩仙」이 그렇다.

『B사감과 러브레타』의 「B사감」이나 『私立精神病院長』의 「W」정도가 약간 性格的 變化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立體的 人物이라기 보다 平面의 人物에 가깝다. 「B사감」에 대한 讀者의 印象이 처음과 끝이 전혀 다르게 나오지만 그것은 性格的 變化가 아니라 作家가 「B사감」의 性格의 전모를 밝히지 않고 끝에 가서 밝히려는 意圖의인 技巧 때문에 變化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憑虛의 代表作이라고 할 수 있는 『운수 좋은 날』의 「김침지」의 경우를 하나의 例로 檢討해 보기로 한다.

그는 無識하고 가난하지만 善良한 人物로 登場한다.

① 「에이, 오라질 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김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번 후려 갈겼다. 흠뻑 눈은 조금 바루어 졌지만 이슬이 맺혀었다. 김침지 눈시울도 뜨끈뜨끈 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 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지만 못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29)

② 「『이년아 죽었다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버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를 치른 눈을 알아 보자 마자,

29) 新韓國文學全集 5. p. 217 引用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용』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룡어룡 적시었다. 문득 김침지는 미칠듯이 계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대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이상하게도 오늘은! 운
 수가 좋더니만……』³⁰⁾

①은 이 小説의 序頭部分에 나온 場面이요, ②는 結末部分이다. 主人公
 의 性格의 패턴이 전혀 變化가 없었음을 그대로 보여 준다. 平面的 人物
 의 본보기다.

이런 平面的 人物은 讀者의 記憶에 오래 남을 수는 있지만 單調로운 人
 物이다. 性格의 固定化는 때로 倦怠感을 주기도 한다. 金東仁이 지적한
 「靜的 人物」이나 「性格이 발달이 없다」³¹⁾고 지적한 것도 이 單調로움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性格描寫에 있어서는 描寫와 對話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독자에
 게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東仁이 주로 叙述과 解説을 통한 性格描寫를
 한데 비하면 憑虛의 그것은 좀더 客觀的의이다. 「B사감」의 性格描寫는 外面
 描寫로 性格을 드러낸³²⁾ 두드러진 例가 될 것이요, 위에 引用한 『운수 좋
 은 날』의 ①, ②의 例文은 對話를 통한 性格描寫가 成功的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 준다. 單純한 平面的 人物을 登場시켰으면서도 性格描寫에
 있어 客觀的, 間接的 方法을 取했기 때문에 독자에게 주는 單調로운 印象
 이 적은 것이 憑虛소설의 特徵이다.

B> 풀 릿

憑虛小説의 또 하나의 特徵은 事件이 比較的 單純하다는 데 있다. 劇的
 인 事件이 없는 平凡한 것이다. 事件의 展開方法도 現實的 時間의 順序대

30) 上記書 p. 223 引用

31) 金東仁 : op. cit. p. 595

32) 鄭漢淑 : 小説技術論 高麗大 出版部 1973. p. 98

로 叙述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貧賤, 飢餓하는 社會, 운수 좋은 날, 고향등 佳作에 屬하는 作品들은 事件進行에 있어서 過去 回想의 場面이 군데군데 나와 單調로움을 免하고 있으나 나머지 소설은 대개 平面的 構成으로 이루어져 있다. 中篇인 『지새는 안개』 정도가 약간 事件이 複雜한 程度이고 나머지는 지나치게 單調롭다는 印象이다. 때문에 讀者가 받는 印象은 單調롭다는 데 歸着된다.

短篇小說이기 때문에 單一한 印象과 單一한 效果를 노리기 위한 당연한 結果이지만 단순한 가운데도 印象의인 劇的 事件이 있을 때 讀者에게 주는 印象과 效果도 크다.

同時代에 作品活動한 金 東仁은 憑虛의 小說을 評하여 技巧의 優秀性을 지적하면서도 「流動하는 人生을 그리려 하지 못하고 靜的 事件을 그리려 하였다」³³⁾고 銳利하게 指摘한 것도 事件의 單調로움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東仁의 소설과 憑虛의 소설을 對比해 볼 때 時間의 處理에 있어서는 오히려 憑虛의 小說이 短篇으로서 우수하다. 東仁은 短篇小說의 定石으로 되어 있는 人生의 斷面을 提示하고 짧은 時間에 일어난 사건을 포착하지 않고 長篇처럼 人生全體를 이야기 하려고 했다. 따라서 時間의 處理에 있어서도 몇 10年의 이야기를 一瀉千里式으로 叙述해 나아가 長篇의 縮少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³⁴⁾

이러한 東仁에 比하면 憑虛는 소설 構成이 짜이고 人生의 斷面을 提示하려는 意慾이 엿보여 보다 短篇小說의 本体를 터득한 것 같다. 東仁이 「파노라마」를 愛用했다고 하면 憑虛는 「場面中心的」인 소설을 제작했다.

1925년에 發表된 東仁의 『明文』과 憑虛의 『운수 좋은 날』(1924)을 對比해 보더라도 前者는 20年間의 事件인 데 비해 後者는 不過 하룻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技術로서는 憑虛가 20年代 作家들 가운데는 優秀한 편이다.

33) 金東仁 : op. cit. p. 595

34) 拙考 : 金東仁의 小說研究, 碩士學位 論文 (高大) 1967. p. 39 參照

특히 結末의 處理에 있어서 憑虛만큼 뛰어난 作家도 드물다. 「아이러니」³⁵⁾를 적절하게 구사한 『운수 좋은 날』, 『피아노』, 『B사감과 러브레터』, 『私立精神病院長』 등등의 手法은 놀랍다. 그것은 독자가 예기치 않은 結末을 가져오게 한 『불』의 경우도 그렇다. 모과씨의 短篇의 結末을 聯想케 하는 結末의 處理는 短篇作家로서 憑虛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C> 視 點

視點의 4가지 樣式³⁶⁾ 卽 ① 中心人物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1인칭 a型), ② 副人物이 登場하여 中心人物을 이야기 하는 것(1인칭 b型), ③ 客觀的 觀察者의 立場에서 이야기 하는 것(3인칭 a型), ④ 作家가 全知的 立場에서 이야기 하는 것(3인칭 b型)에 따라 憑虛小說을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一人稱 a型→貧妻, 墮落者, 그림은 흘긴 눈, 우편국에서, 동정 등
- ② 一人稱 b型→희생화, 할머니의 죽음, 私立精神病院長, 故鄉等
- ③ 三人稱 a型→없음
- ④ 三人稱 b型→술勸하는 社會, 운수 좋은 날, 불, B사감과 러브레터, 피아노, 유린, 발, 까막잡기, 貞操와 藥價, 지새는 안개, 등

①의 一人稱 a型中 『그림은 흘긴 눈』을 除外한 나머지 小説은 대체로 中心人物과 作家가 類似하다. 그들의 社會的 地位나 환경(學歷, 年令, 職業)이 이 小説들을 쓸 때의 憑虛 自身の 그것과 비슷하다. 이들 소설의 主人公과 憑虛 자신이 다 같이 20代였고 教育을 받은 知識人이요, 동시에 글을 쓰거나 新聞記者였다. 特히 『墮落者』의 主人公과 妓生「春心」이와의 關係는 憑虛 自己의 體驗과도 類似하다.³⁷⁾

적어도 憑虛는 題材를 自己 自身에서 찾았고, 自己 個人的 體驗에서 생

35) Understanding Fiction p. 685

36) 上記書 p. 148

37) 李在民: 「새 資料로 본 憑虛의 生涯」(文學思想 7號) p. 358

긴 문제를 小説化했다는 것을 짐작케 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憑虛個人의 問題를 呼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植民地 知識人 一般의 問題를 다루고 있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點이 單純한 私小説이나 心境小説로 떨어지지 않은 理由다. 그것은 그가 題材를 자기 자신에서 찾았으나 「그 處理方法이 客觀的」³⁸⁾인 데서 온 것이요,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客觀적으로 예리하게 觀察하는 藝術的 自我가 自己의 經驗을의 修正한 데서³⁹⁾ 얻어진 結果다.

사실 憑虛는 이런 自己의 體驗을 3人稱小説로 썼더라면 小説의 效果는 더 컸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같은 題材이면서도 『貧賤』나 『墮落者』보다 『술 勸하는 社會』나 『지새는 안개』가 讀者에게 주는 印象이 더 두드러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主人公이 自己自身을 이야기 하는 視點은 때로 作家와 主人公을 同一視할 可能性이 있다. 더구나 題材가 作家周邊의 일일 때는 完全히 主人公을 作家 自身으로 믿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作家가 作家 個人의 問題를 一般化 시킨다 하더라도 讀者는 作家 個人의 것으로 限定해 버릴 可能性이 있다. 적어도 이들 小説에서 問題된 知識人의 좌절의 問題는 憑虛 個人만의 問題가 아니라 當時 知識人 一般의 問題다. 때문에 視點을 3人稱으로 썼더라면 效果가 더 컸을 것이다.

『그림은 흘진 눈』도 同一한 視點을 取하고 있다. 그것이 作家와는 전혀 異質의인 기생의 立場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부잣집 외동아들이 沒落過程과 이를 바라보는 妓生의 心理를 讀者에게 傳達하는 것이 鮮明하다. 만일 이것이 男主人公 立場에서 男子의 이야기를 쓴 것이라면 小説의 效果는 적었을 것이다.

②의 一人稱 b型의 小説은 話者(副人物)가 主人公을 觀察하여 서술하는 만큼 話者(나레이터)의 立場에서 이야기가 進行된다. 말하자면 作家와 作中人物 사이에 作家를 代身한 話者가 낀 것이다. 作家는 소설의 뒤에 숨

38) 趙演鉉: op. cit. p. 572

39) 이상섭: 「身邊體驗小説의 特質」(文學思想 7號) p. 334

어 있으면서 얼굴을 내밀지 않은 것이라면 話者は 소설 속에서 어떤 人物이나 하는 것이 밝혀진다. 具體的 人物을 通하여 이야기가 進行되는 만큼 話者和 主人公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야 小説로서 效果가 있을 것이다.

『희생화』의 경우는 話者が 主人公의 男同生으로, 『할머니의 죽음』은 손자로, 『私立精神病院長』은 친구로, 『故郷』은 같은 기차를 탄 植民地 知識人으로 登場하고 있다. 觀察者가 同時에 話者다. 때문에 主人物과 觀察者 사이의 關係는 이야기 進行에 어떤 限界를 주는 대신 그 立場이 分明해 지므로 讀者에게 주는 效果도 있다. 그런데 話者が 作家와 비슷한 人物일 때 굳이 이런 視点を 써서 效果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희생화』는 소설 그 自体는 대단치 않지단 사랑에 빠진 누님을 男同生의 立場에서 바라보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주는 效果는 적지 않다. 그러나 『할머니의 죽음』의 「손자」나 『私立精神病院長』의 「나」나 『故郷』의 「나」는 作家와 아주 비슷한 人物이다. 이것은 話者が 作家와 비슷하다는 点에서 全知的 視点과 별로 다름이 없다. 이 점은 20年代 作家들이 즐겨 쓴 方法으로 金東仁의 『배파라기』, 『狂畫師』, 『狂炎 쏘나타』, 『붉은 山』등의 方法과 상통한다. 一種의 당시의 作家들 사이의 流行的인 方法일 수도 있다.

나머지는 대체로 3인칭 全知的 視점에 의존해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3인칭 a型인 觀察者의 視点도 없지 않다. 『운수 좋은 날』의 경우가 그렇다. 全知的 視点を 채용한 것은 從來의 說話作家들의 方法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作家들도 즐겨 愛用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에서는 作家가 뒤로 물러 서서 얼굴을 감추어야만 效果가 있다. 作家가 얼굴을 내밀어 「말참견」 한다면 소설의 效果는 줄어든다. 그렇게 볼 때 金東仁은 작가 스스로 소설속에 끼어 들어 말참견한 경우가 많다.⁴⁰⁾ 그것에 비하면 憑虛는 客觀的 觀察者의 立場에 서려는 努力이 強하다. 이것이 빙허소설의 人物

40) 拙考: 金東仁의 小説 研究 p. 45 參照

의 平面性, 事件의 單調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적어도 小說의 方法 으로서는 憑虛가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된다.

4. 結

憑虛의 世界는 植民地 韓國의 現實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이를 批判하려는 作家精神의 所産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植民地下의 知識人의 問題,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빈민들의 問題를 銳角의으로 포착하고 批判한 것은 리얼리즘의 精神 바로 그것이다. 따지자면 소설은 散文精神에서 出發되어야 한다. 散文精神이란 곧 批判精神이요, 소설은 作家의 現實과 社會 그리고 人間에 대한 비판의 表現이다. 그점에서 憑虛는 1920年代의 植民地 韓國을 證言·批判한 代表的 作家다. 時代精神과는 거리가 먼 耽美의 世界로 도피한 것도 아니요, 說教的 啓蒙도 아니요, 더구나 階級意識을 고취한 浮世문학에 젖어 들지도 않았다. 植民地 作家로서의 證言과 告發을 계속했다는 것은 作家精神이 健全性을 意味한다. 그것은 韓國을 아끼고 한국적 現實을 明確하게 證言하려고 한 精神的인 姿勢⁴¹⁾의 所産이기도 하다.

위에서 言及이 되지 않은 『불』이나 『할머니의 죽음』등 因習이 빚어내는 모순을 그린 것도 비판정신의 所産이요, 『貞操과 藥價』의 빈곤 문제도 韓國 現實의 단면을 드러내 보이려는 證言者의 意志의 所産이다.

이러한 憑虛의 作家精神은 李朝後期の 作家 朴燕岩의 作家精神과 相通하는 것이요, 또 이러한 精神은 오늘날의 作家들에게도 계승되어 마땅한 정신이기도 하다.

背景이 거의가 서울로 限定되어 있고 題材를 生活周邊에서 찾았다는 것은 作品世界의 幅이 좁고 作家의 想像力의 빈곤을 意味한다. 作家란 想像力의 풍부할 때 作家로서의 生命이 길다는 점을 생각할 때 憑虛의 限界點도 드러난다. 더구나 同時代의 作家인 金東仁이나 廉想涉은 全生涯에

41) 金字鐘：韓國現代小說史，서울，宣明文化社 1968，p. 166

결쳐 作品活動을 했음에도 不拘하고 憑虛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憑虛의 作品世界가 限定될 수 밖에 없었던 要因이다.

그러나 憑虛의 소설은 現實과 社會를 깊이 意識하고 비판하려는 리얼리즘의 精神, 人生의 단면을 壓縮的, 銳角的으로 提示하는 短篇小說의 本体에 누구보다도 앞서 接近했다는 点에서 우리는 그의 文學的 成果를 찾아야 할 것이다.